

국내 전문대학의 고등직업교육 분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이태정, 윤우영*

계명문화대학교 세무회계정보과 교수

A Study on Methods for Korean Colleges to Participate in Higher Vocational Education Area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ae-Jung Lee, Woo-Young Yun*

Professor, Dept. of Tax Accounting, Keimyung College University

요 약 현재 우리의 직업교육훈련(TVET) ODA는 첫째, 단기 프로젝트 성 지원사업에 전체 TVET 예산의 70%가 사용되어 프로젝트 간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 둘째, TVET ODA 예산이 하드웨어 지원사업에 편중되어 투자 대비 파급효과가 낮고, 마지막으로, 사업 시작 전 수원국 내의 수요조사가 미흡하여 TVET 사업의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ODA 사업의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의 TVET ODA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TVET ODA의 경향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내 전문대학의 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문대학은 오랜 산학협력을 통해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국 현지 수요와 기업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유리하다. 또한, 국내에서 시행 중인 자격검증제도를 현지에 이식하고, TVET 관련 인력을 파견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한편, 전문대학이 가진 사업별 사후평가와 취업 후 관리에 대한 역량이 TVET 사업의 사후관리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더욱 다양한 전문대학 참여방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주제어 : 직업교육훈련, 공적개발원조, 전문대학, 개발원조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국제협력단

Abstract Firstly, our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TVET) ODA currently uses 70% of its budget on short-term assistance project works without much consideration for continuity from one project to another. Secondly, TVET ODA budget is much too concentrated on hardware support, lowering impact compared to the amount invested. Lastly,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needs of recipient nation which leads to lowering effectiveness of TVET ODA.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TVET ODA through the statistical data analysis of ODA.

This study's main focus is to recommend methods for Korean colleges to overcome tendencies and limitations of TVET within Korea's ODA. Colleges have advantages in training students to fit needs of the market and companies based on decades of experience colleges have on academic-industrial collaboration. Colleges can also transfer qualification verification systems to fit the recipient country and dispatch TVET related personnel to strengthen software support. Additionally, the post project evaluation and post job placement management capabilities of colleges can be actively used for post management of TVET projects.

I hope that through this study, ways to increase participation of colleges in TVET ODA can be discussed in more variety.

Key Words : TVET, ODA, College, DAC, OECD, KOICA

*Corresponding Author : Woo-Young Yun(ywy38@kmcu.ac.kr)

Received February 12, 2021

Accepted May 20, 2021

Revised March 5, 2021

Published May 28, 2021

1. 서론

국제개발협력은 전통 공여국의 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퇴치하고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전통 공여국들의 국제개발협력 공여 행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원조 규범을 충실히 따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1].

직업교육훈련(TVET,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은 고용에 필요한 기술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과 훈련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2]. TVET는 국제개발협력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 이는 TVET가 단순히 고용을 촉진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며 사회적 삶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3].

대한민국은 오랜 기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원조 공여국의 지위로 당당히 거듭나면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양적·질적 확대를 이루어 내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TVET ODA도 각 사업의 규모, 전문성, 진출 국가 등 모든 범주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한국은 2019년 25억 2천만 불을 ODA로 제공하면서 OECD DAC의 30개국 중 규모 면에서 15번째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교육 ODA도 성장세를 보이며, 2018년 기준 3억 6천만 불을 제공하였으며, 이 중 TVET ODA로는 교육 ODA의 8%에 해당하는 2천 8백만 불이 배정되었다[4].

한국 TVET ODA는 첫째, 단기 프로젝트 성 지원사업에 전체 TVET 예산의 70%가 사용되어 프로젝트 간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약점이 있으며, TVET ODA 예산이 하드웨어 지원사업에 편중되어 투자 대비 파급효과가 낮으며, 수원국 내의 수요조사가 미흡하고 현지 기업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TVET 사업의 효과가 저하되고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전문대학은 오랜 산학협력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의 노하우 지니고 있다[5-7]. 따라서 수원국 현지 수요와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요구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유리하다. 또한, 국내에서 시행 중인 자격검정제도를 현지에 이식하고, TVET 관련 인력을 파견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한편, 전문대학이 가진 사업별 사후평가와 취업 후 관리에 대한 역량이 TVET 사업의 사후관리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ODA 사업의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의 TVET ODA의 경향성과 한계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국내 전문대학의 적극적인 ODA 참여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한국 TVET ODA의 문제점을 최신 통계자료를 통해 재확인하고, 그 해결책을 직업훈련교육의 전문가인 전문대학에서 찾았다는 데에 있다. 전문대학은 그 설립 취지부터 TVET 사업과 일맥상통하며, 취업과 고용에 대한 독자적인 전문성을 갖추었음에도 TVET 사업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최근 국제협력선도대학 전문대학 별도 선정, 글로벌교육지원 사업에서 지정형과제 「아세안 국가 고등직업교육 개발협력 수요조사」 공모, 민관협력사업, 정부부처제안사업, 민관협력인큐베이팅사업 등 전문대학의 TVET ODA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더욱 다양한 전문대학의 참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2. 대한민국 ODA 현황

2.1 ODA란?

국제개발협력에서의 ODA(공적개발원조)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부 차원에서의 원조”로 정의된다[8].

2019년 현재 OECD 산하 DAC 30개 회원국의 ODA 제공 규모는 약 1,520억 불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확대되었다. 그러나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영국 등 몇몇 서구권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DAC 회원국에서는 ‘공여국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의 0.7%’라는 UN의 권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선에서 ODA가 제공되고 있다.

한국은 2010년 DAC 회원국으로 참여하며 국제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첫 번째 사례로 거듭나게 되었다. 지난 10년간의 DAC 참여 이래 한국의 ODA는 2010년 11억 7천만 불에서 2019년 25억 2천만 불로 ODA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증가해왔다. 이는 규모 면에서 30개 회원국 중에 15위에 해당하나, 전체적인 경제 규모를 고려한 척도에서는 ODA가 국민총소득(GNI)의 0.15%에 불과하여 0.3% 수준의 전체 평

군에 크게 뒤떨어지며 30개 회원국 중 25위에 놓이게 되었다[4].

제공경로 측면에서 한국의 ODA는 양자 대 다자의 비율을 75:25 선에서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75.5%가 양자 사이 ODA로, 24.5%가 다자간 ODA로 제공되었다. 이 중 양자 사이 ODA는 다시 36%의 무상원조와 64%의 유상원조로 구성되었으며, 지원 분야별로 경제인프라에 40.2%, 사회인프라에 30.3%가 배정되었다[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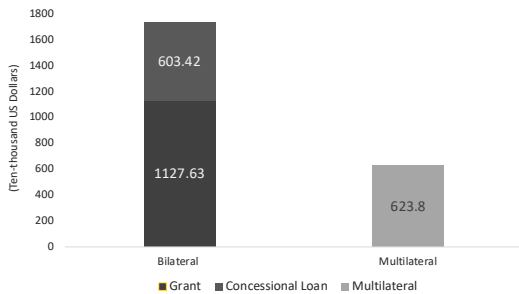


Fig. 1. Korean ODA 2018(by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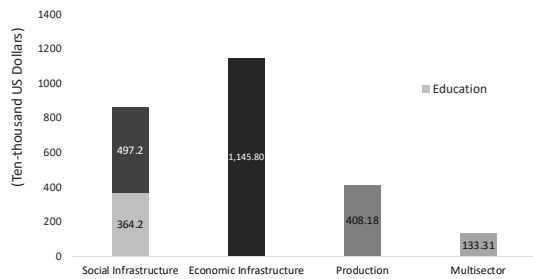


Fig. 2. Korean ODA 2018(by sector)

한국 정부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국무총리실 소속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결과를 평가하며 관계부서별 활동 사안을 조율해왔다. 이때 무상원조는 외교부 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에서 주관하며, 유상원조 및 다자기구 참여에 관한 사안은 한국 수출입은행이 위탁관리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통해 지급된다. 최근 정부/NGO 협력과 기부·사회공헌 활성화 및 강화 등 또한 주요 이슈로 나타남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ODA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10].

2.2 교육 ODA란?

DAC의 분류에 따르면 교육 ODA는 사회 인프라 부문 원조의 한 분야로, 2018년 기준 ODA 30개 회원국이 제공한 462억 7천만 불의 사회 인프라 부문 ODA 중 19%(91억 1천만 불)에 달하며, 전체의 34.8%(161억 4천만 불)에 달하는 정부 및 시민사회에 대한 ODA 지원에 이어 사회 인프라 부문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11].

교육 ODA는 다시 교육 일반,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분류된다. 이 중, 고등교육에 전체 교육 ODA의 42.6%(38.7억 불)가 집중되어 있으며 초등교육(30.2%, 27.5억 불), 교육 전반(17.2%, 15.7억 불), 중등교육(10%, 9.1억 불) 순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사회 인프라에 대한 원조(8.6억 불)가 전체 ODA의 30.3%를 차지하며, 이 중 42.2%가 교육 분야에 지급되었다. 이는 사회 인프라 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임은 물론, 27개 세부 분야 중 경제인프라 부문의 에너지 분야, 교통 분야에 이어 단일 세부 분야로는 세 번째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한국의 교육 ODA는 다른 DAC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에 집중되어 있다(교육 ODA의 44%, 1.6억 불). 다만, 한국의 경우 중등교육이 22.7%, 교육일반이 21.5%, 초등 교육이 11.8%로, 중등교육 분야의 지원이 타 회원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2.3 TVET ODA란?

TVET는 취업에 필요한 기능과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습득시키는 활동으로, 정규 교육과정(formal education)의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원 등의 기관(non-formal education)에서 이루어진 직업훈련을 통합하여 일컫는 명칭이다[12, 13]. 즉, TVET의 개념은 전 생애 동안 평생학습의 관점으로 직업 탐색단계부터 구직 후 능력개발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13]. 특히, 이와 같은 포괄적인 개념은 국가별·산업별로 ODA 지원이 구체화되고 다변화되는 현실을 반영하기에 더욱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OECD DAC의 지원 분야별 분류에 따르면, TVET ODA에 관련된 예산은 사회인프라 ODA의 교육 ODA로 분류되며, 크게 중등교육 ODA의 하위항목인 ‘직업교육’으로 집계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ODA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앞에서 언급한 ‘직업교육’ ODA 사업은 물론, 고등교육 ODA의 하위항목 중 ‘전문대 교육’에서 실

시된 직업역량강화사업도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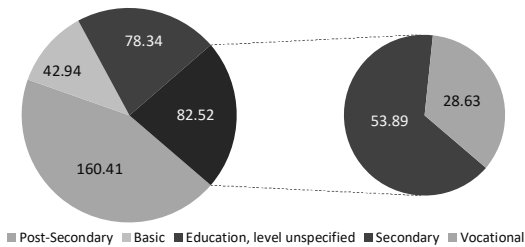


Fig. 3. Korean Education ODA 2018 (by subsector, Ten-thousand US Dollars)

OECD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TVET ODA 책정 예산은 해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2013년은 5천 만불 이상이 TVET 예산으로 배정됐지만, 2016년에는 1천 6백만 불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중등교육 ODA에서 TVET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15%에서 75%까지 다양하며, 교육 ODA 전체에서의 비중은 7%~15% 선에서 유지되는 실정이다[11].

3. 한국 ODA의 문제점

3.1 프로젝트 사업으로의 편중

한국 ODA는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질적·양적인 측면에서 여타 DAC 회원과의 비교에서도 크게 부족하지 않을 수준으로 성장했다. 또한, DAC 회원국들과는 달리,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국제원조를 바탕으로 산업을 발전시킨 역사적 경험을 통해 물질적인 원조를 넘어 수원국의 입장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다는 강점도 가진다[14]. 하지만 신흥 ODA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ODA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협력을 진행하기보다는 일회성 프로젝트 등의 성격으로 여러 개발협력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된다는 단점이 자주 거론되었다 [15-18].

KOICA의 구분에 따르면, 프로젝트형 사업은 건축, 시설물, 기자재 등 하드웨어 지원과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등 소프트웨어 지원을 결합한 사업을 말한다. 이는 개발 컨설팅, 봉사단 파견, 민관협력사업, 국제기구 협력사업 등과 함께 KOICA에서 시행 중인 총 9개의 사업유형 중의 하나이다.

한국 TVET ODA가 프로젝트 사업으로 편중되었다는

현실은 KOICA의 사업비 분석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5년간의 ODA 통계에서 전체 ODA 중 프로젝트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내외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중 교육 부문 ODA도 40%대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TVET ODA의 경우, 연도별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전체 예산의 6~70%가 프로젝트형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다[19].

Table 1. Korean ODA - Provision for ODA projects

| Classification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Korean ODA (US Dollars) | Provision(A) | 477,585,127 | 551,296,360 | 563,250,356 | 551,862,696 | 562,332,055 | 621,481,676 |
| | Provision for Project(B) | 198,809,483 | 216,003,116 | 199,568,043 | 221,168,408 | 236,663,574 | 266,556,119 |
| | Project Proportion(B/A) | 41.62% | 39.18% | 35.43% | 40.08% | 42.09% | 42.89% |
| Korean ODA (Education Sector, US Dollars) | Provision(A) | 140,264,285 | 131,052,920 | 117,681,653 | 113,703,820 | 119,565,766 | 153,823,195 |
| | Provision for Project(B) | 68,113,290 | 54,320,440 | 46,741,499 | 52,571,150 | 49,434,714 | 67,374,429 |
| | Project Proportion(B/A) | 48.56% | 41.44% | 39.72% | 46.24% | 41.35% | 43.80% |
| Korean ODA (TVET Subject or, US Dollars) | Provision(A) | 42,033,295 | 31,817,825 | 29,136,385 | 20,353,753 | 23,352,313 | 27,893,371 |
| | Provision for Project(B) | 36,527,652 | 21,514,269 | 19,964,141 | 14,801,363 | 14,701,530 | 19,729,465 |
| | Project Proportion(B/A) | 86.90% | 67.61% | 68.52% | 72.72% | 62.96% | 70.73% |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프로젝트형 TVET으로의 편중을 한국 TVET ODA가 가진 여러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먼저, 프로젝트 간에 공유하는 가치와 지향점이 없는 프로그램이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프로젝트 간의 연계성이 떨어진다[16, 18, 20]. 현재의 ODA 지원 체계에서 사령탑이라 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도 ODA 지원 분야 간의 예산 중복만 조정하는 역할만 수행할 뿐 중장기적인 개발협력 목표설정과 프로젝트 간 연계성 구축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16, 21].

또한, 프로젝트 지원이 일회성 지원으로 그치면 사후관리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문제를 발생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 한국 ODA 전반에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게 되기도 한다. 가령, 외교적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된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계획 때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이 부재하거나 미흡하며, 사후평가 또한 내부적으로만 진행되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20]. 이러한 경향성은 이미 수원국 현지 당국자와의 대담에서 수차례 개선사항으로 논의되었으며, 관점에 따라서는 수원국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한국의 TVET 시스템을 채택하여 벤치마킹

하는 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14, 20].

마찬가지로 후술할 하드웨어 지원 위주의 TVET 프로그램 활동이나 미흡한 수요조사 및 현지조사 또한 단기 프로젝트형 TVET로 인해 초래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3.2 하드웨어 위주의 지원

앞서 지적되었던 중장기적인 개발협력 이념의 부재와 그로 인한 프로젝트형 지원사업으로의 집중은 하드웨어 지원 위주의 TVET 추진이라는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진다. 단기간에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개발협력 프로젝트의 특성상, 직업훈련원 설립이나 실습 기자재 지원 등 하드웨어 지원에 편중되기 쉽다.

이러한 경향성은 사업예산의 분배와 추진사업의 내용에 여실히 드러난다.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KOICA에서 24개국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38건의 TVET 관련 사업을 분석하였다[19].

먼저 사업예산 측면에서, 평균적으로 각 사업예산의 63%가 토목 및 기자재 관련 예산 등 하드웨어 지원 명목으로 배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38건 중 22건은 70% 이상의 예산을 하드웨어 지원에 사용하였으며, 그 중 80% 이상의 예산이 하드웨어 지원에 사용된 사업도 7건이나 있었다. 반면, 하드웨어 예산이 전체의 50% 미만인 사업은 6건에 불과하였으며, 그중 단 3건만이 TVET 컨설팅 등 소프트웨어 지원에 집중하였다.

한편, 사업 내용 면에서 살펴보면, 하드웨어 지원에 예산을 편성했던 35건의 사업 중 30건이 직업훈련원 신축, 기존 직업교육시설 증축 및 보수 등 토목공사 관련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서 실습 시설이나 기자재만을 지원한 사업은 5건에 지나지 않았다.

KOICA의 TVET 지원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은 주로 국내 전문가의 현지 파견, 수원국 당국자의 국내 초청 연수,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등으로 이루어졌다. 앞서 언급된 38건의 지원사업 모두에서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도 제공되었다.

하지만, 예산 대부분이 하드웨어 지원에 배정되면서 소프트웨어 지원은 대폭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었다. 가령, 전문가 파견의 경우, 1~2명의 컨설팅 전문가가 프로젝트 전 기간에 상주하기도 하지만, 전문가 대다수는 3~6개월 동안 2~4명씩 교대로 단기간 파견되는 데에 그쳤다. 당국자의 국내 초청 연수의 경우에도, 장기 연수

보다는 1~2주간 관리자급 당국자의 국내 견학이나 2~3개월간의 초청 연수를 시행하는 데에 지나지 않았다. 최근 시행된 사업의 경우,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의 비중을 확대하기도 하지만,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효과를 위한 수원국 현지 연수를 강화하거나 사후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선행 연구에서도 하드웨어 지원 위주로 ODA가 지원될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왔다. 먼저, 제공된 시설과 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었다.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은 베트남의 경우, 시설과 기자재가 관리 부재로 인해 방치되거나 본래의 설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보고되었다[20, 22]. 또한, 한국 물자 구매가 의무화되어있거나, 현지에서 한국산 기자재를 조달하지 못하여 사용이 중단된 예도 있었다[21]. 이는 곧 높은 비용을 들인 하드웨어 지원마저 일회성으로 그쳐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사례라고 하겠다.

더욱 근본적인 관점에서 지원의 효율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먼저 효율성 측면에서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선진 공여국에서는 전문가를 장기적으로 파견하여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ODA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선호한다. 특히, 독일의 경우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자가 고용시장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돕거나, 수원국 정부가 직업훈련제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18].

더욱이, 프로젝트의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일정과 예산 위주의 성과관리 관행에서 탈피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취업 기회의 확대와 직업훈련의 질적 향상이 평가되어야 한다.

Table 2. Case of Hardware-oriented ODA Projects
(Unit : Ten thousand Dollars)

| Classification | Period | Total Budget (A) | H/W Budget (B) | Ratio (A/B) | Support Details | S/W Budget | S/W Support Details |
|----------------|-------------|------------------|----------------|-------------|---|------------|---|
| Country A | 2018 ~ 2022 | 932 | 730 | 78.3 % | Training center construct(550) + Training equipment(180) | 142 | Dispatch of experts(109)+ Invitational training(33) |
| Country B | 2017 ~ 2021 | 988 | 853 | 86.3 % | Technical high school construct(608) + Office equipment and equipment (245) | 130 | Dispatch of experts(100)+ Local and invitational training(30) |

| | | | | | | | |
|-----------|-------------|-------|-------|-------|--|-----|--|
| Country C | 2015 ~ 2025 | 1,495 | 1,050 | 70.2% | Technical university construct(750) + Equipment support(300) | 184 | Dispatch of experts(136)+ Invitational training(48) |
| Country D | 2013 ~ 2017 | 400 | 230 | 57.5% | Equipment donation(230) | 140 | Program development(35) + Invitational training and Dispatch of experts(105) |

* Country A :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 construction project
 ** Country B Technical high school establishment project
 *** Country C Technical high school teacher training and retraining project
 **** Country D Training center development capability enhancement project

Table 3. Case of Software-oriented ODA Projects

| Classification | Period | Total Budget(A) | H/W Budget(B) | Ratio(A/B) | Support Details | S/W Budget | S/W Support Details |
|----------------|-----------|-----------------|---------------|------------|--------------------|------------|---|
| Country E | 2018-2022 | 850 | 0 | 0% | - | 786 | Capability enhancement (500)+ Teacher training(100)+ Building e-learning system(163) |
| Country F | 2016-2022 | 583 | 189 | 32.4% | Equipment donation | 309 | Curriculum development(106)+ Teacher capability enhancement (76)+ Establishment of certification system(53)+ In-depth analysis of employment Demand (33)+Performance management(26)+ Project management(15) |

* Country E : Technical education and youth employment enhancement project
 ** Country F : Technical high school establishment project

3.3 사전조사 미흡

TVET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항상, 수원국의 노동 시장 수요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TVET가 여러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 중에서도 특히 고용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으며, 교육 후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지원사업의 의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고용 연계성이 크게 강조되기 때문이다[14]. 하지만, 한국 TVET ODA의 경우, 사전 조사가 미흡하여 수원국 노동시장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원국에 한국기업이 진출한 경우, 숙련 인력 공급 등을 통해 기업을 국제개발협력의 한 축으로 포함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로 제한된 형태의 협력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정부 및 직업교육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을 진행한 선행 연구에서, 미흡한 노동시장분석에 대한 문제는 수차례 지적되어왔다. 이남철과 정지선(2016)이 아시아 11개국 KOICA 연수교육 이수자 및 해당 분야 전문가 585명을 설문한 결과, ‘대상국 조사·분석 미흡’으로 인한 현지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지원이 ‘일관성·연속성 결여’, ‘중장기 계획 미흡’, ‘낮은 지원 규모’ 등과 함께 한국 ODA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15]. 또한, 채지은과 우명숙(2013)이 베트남 정부 및 산업대학 담당자와 진행한 면담에서도, 사업 시행 전 현지 조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해 원조의 효과성이 결여된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20].

한편, 사전 조사가 미흡할 경우,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의 연계성도 떨어져 기업이 가진 국제개발협력 역량과 의지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 것도 문제라 할 수 있다. 먼저, TVET의 근본적인 목적인 고용증대와 그로 인한 빈곤 감소의 측면에서, 정부 주도로 기업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TVET 사업이 진행되어, 현지 진출 기업이 관련 인력을 고용할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교육훈련의 미비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4].

2018년 기준, KOICA의 민간협력사업은 총 228건으로 이 중 교육 관련 사업이 69건, 다시 교육 관련 사업 중에서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업이 26건이었다. 다만, 위 활동의 대부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관련한 활동이나 민간협력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즉, 위와 같은 사업은 대체로 기업 차원에서 실시되는 단기 사업으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수천만 원 미만의 비교적 적은 지원 예산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추세는 여러 기업이 개발협력에 대해 충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추었음에도, 정부 차원의 적절한 연계 점이 없어 그 효과가 분산되고 있는 것이다

4. 전문대학 참여방안

한국 TVET ODA에 앞서 언급된 문제, 즉 단기 프로젝트 사업 위주의 TVET ODA 시행과 그로 말미암은 하드웨어 지원 위주의 지원형태 및 미흡한 사전 조사는 앞으로 한국이 더욱 선진적인 ODA 운용을 위해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사안이다. 이때 국내의 전문대학은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의 전문기관으로 위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역량을 갖춘 주체로서, 수원국 현지에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이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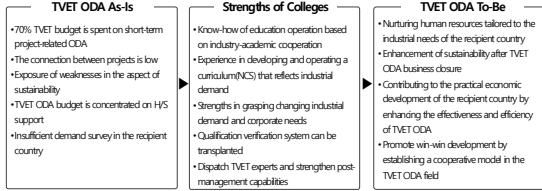


Fig. 4. Plans to utilize the strengths of colleges

4.1 사업 시행 전 현지 수요조사

지금까지의 프로젝트형 TVET ODA에서 수원국의 신청사항에 대해 타당성 조사 위주로 진행되던 일차원적인 현지 수요조사는 전문대학의 참여로 수원국의 구직자, 현지 진출 기업과 시민사회 구성원까지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

먼저 전문대학은 오랜 산학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의 기업의 수요를 쉽게 파악하는 역량을 갖추었다. 전문대학은 졸업 후 진로가 보다 구체화되어 있는 만큼, 유망 기업의 관계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와 같은 전문대학의 성숙한 산학협력 메커니즘은 수원국 현장에도 적용할 수 있어, 수원국에 있는 다양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전문대학은 산업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의 노하우 지니고 있다[5-7]. 이러한 장점은 TVET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과정이나 비용을 줄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수원국의 구직자에게도 과정 수수료 후 취업과 연계되면서 안정성도 높다고 하겠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단순히 구직을 위한 직업훈련 이외에도 여러 숙련기술이 시민사회 전반의 발전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전문대학의 역량은 수원국의 시민사회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데, 계명문화대의 우즈베키스탄 기능인력 취업증대를 위한 현지 조사와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민관협력사업인 『우즈베키스탄 취업 및 창업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숙련기능 인력 소득증대 방안 사업』은 이러한 전문대학의 역량을 보여주는 좋은 예에 해당한다.

4.2 TVET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의 확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성과를 위해서는 하드웨어 지원 이후에도 수원국에서 자체적으로 직업훈련 시설과 기자재를 운용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자격검증제도 이식

교육목표가 구체화 되어있는 전문대학의 특성상, 커리큘럼에 직업능력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 포함되어 있거나, 학과별 자체 자격제도를 구축하여 직업역량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자격제도는 이미 여러 현지 조사에서 높은 수요를 보였으며 실제로 적용되었을 때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5, 22].

전문대학은 수원국의 직업능력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수과정을 개설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현지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자격검증제도를 신설할 수도 있다. 이처럼 자격검증제도는 자격증 취득에서 오는 가시적인 고용증대 효과 이외에도, 피교육자의 직업능력 계량화라는 관점에서 중요하다. 더욱이 검증제도와 그에 따른 교육콘텐츠가 현장에 정착하면 추가적인 지원이 없이도 해당 기술 역량이 재생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2) 인적자원 파견

인적자원의 양성은 소프트웨어 지원의 핵심적인 분야로, 하드웨어 지원에 편중되어 있던 기존 TVET ODA 시행 시에도 국내의 전문인력 파견이나 수원국의 담당자 초청 연수를 통해 빠지지 않고 진행되어온 사안이다. 전문대학은 직업교육에 특화된 기관인 만큼, 직업교육을 위한 전문교육 인력도 풍부한 편이다. 전문대학에서는 교수급 인력을 수원국에 파견하여 전반적인 산업조사, 커리큘럼 개발 및 전수, 교육의 질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졸업생이나 조교급 인력을 파견하여 현지 실습조교나 직업훈련원의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전문대학의 인력을 활용하게 되면, 효율적인 ODA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는 국내의 인력을 파견하기 전에 교육 방법론 습득을 위해 재교육하거나, 높은 비용으로 인해 주로 단기간 진행되었던 초청 연수의 필요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하드웨어가 충분히 제공된 수원국의 경우, 해당 실습 시설이나 기자재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숙련 인력을 파견하

여 상주시킬 시, 추가적인 하드웨어 지원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투자 효과를 유지하고 사업의 연속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3) 사후 평가 시 전문대학의 역할

투명하고 공정한 사후평가의 필요성은 한국 ODA의 중대한 숙제로 주목받아 왔다. 전문대학에서는 구체적이고 세밀화된 평가문항 개발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취업에 관한 사항들은 정기적으로 관찰/분석하며 보안점을 찾고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취업을 외에도 각종 커리큘럼과 취업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단계마다 평가를 시행한다.

전문대학이 TVET ODA 사후평가에 참여할 경우, 사업 시행 시 단계별평가를 시행하여, 해당 직무 관련 전문 인력이 사업 효과를 진단할 수 있고, 나아가 효과 제고를 위해 커리큘럼 상의 조언을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장기간의 고용실태 조사와 선진적인 고용 후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자체의 사후관리는 물론, 취업과 고용의 전반적인 안전성도 도모할 수 있다.

5. 결론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통해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단기간에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성장의 주요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개도국의 교육개발협력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전문대학은 국가 및 지역 산업과 연계된 전문화된 직업인력 양성을 통해 경제발전 에 기여하였으며, 최근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전문대학의 선진 직업교육을 전수받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대학은 TVET ODA 경험 축적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참여가 저조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TVET ODA 분야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살펴보고, 전문대학의 인적·물적 역량을 결집하여 TVET ODA 참여 확대를 통해 수원국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TVET ODA에 전문대학의 참여가 확대될 경우 강점은 첫째,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과 사회의 요구를 교육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전문대학의 산학협력 메커니즘은 현지 수원국 현지에 적용하여 수원국의 요구를 파악한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 둘째, 교육목표가 구체화 되어있는 전문대학의 특성상, 커리큘럼에 직업능력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 포함되

어 있거나, 학과별 자체 자격제도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수원국의 직업능력 관련 자격증을 취득 과정을 개설하거나 현지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자격검증제도 신설이 가능하다. 셋째, 직업교육에 특성화된 기관인 만큼, 직업교육을 위한 전문교육 인력도 풍부하여 교수급 인력 파견, 졸업생이나 조교급 인력 파견을 통한 실습조교, 직업훈련원 교사 역할 수행 등을 통해 전반적인 TVET ODA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전문대학은 궁극적인 지향점과 접근 방법론적인 면에서 TVET ODA에 적합한 주체임에도 참여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최근 국제협력선도대학, 글로벌교육지원사업, 민관협력사업, 정부부처제안사업, 민관협력인큐베이팅사업 등의 TVET ODA에 전문대학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TVET ODA 운용과 성과관리가 더욱 고도화되고 세분화되는 흐름에 맞추어, 전문대학의 참여와 이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통계자료 분석에 치우친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TVET ODA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지 등을 활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TVET ODA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D. S. Kim & H. Y. Chang. (2019). Traditional Donors in Good Governance and Corruption: Analysis on 43 African Recipi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12), 35-44.
- [2] United Nations Education,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015, August). *PROPOSAL FOR THE REVISION OF THE 2001 REVISED RECOMMENDATION CONCERNING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General Conference. (pp.3). Paris
- [3] Y. H. Lee. (2012). The Status Quo and Challenge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or TVET. *The HRD Review*, 1, 140-161.
- [4] 2019 ODA Provisional statistics (2020.4.) *Press release of the Cabinet Office*.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783>
- [5] J. G. Gu & J. G. Lee(2007), A Study on Design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Curriculum with Key Competenc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5(2), 109-122.
- [6] W. Y. Yun & T. J. Lee (2019). Competency-based Module-Tracked Curriculum (MTC) Development Research. *Tax Accounting Research*, 62, 141-164.

[7] H. J. Lee & J. H. Han (2020). NCS-based Curriculum Utilization Status and Improvement Plan-Focused on Learners-. *Tax Accounting Research*, 63, 137-155.

[8]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0).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Brochure]. Paris: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9]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EDCF Group. (2020. March). *2019 ODA Statistics*. ODA Statistics, 1, 22-69.

[10] S. G. Kim. (2016). The Study on the CSR -Focused on LG Electronic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6), 69-83.

[11]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

[12] C. H. Kim, Y. H. Lee, & K. W. Cho, (2012). A study on Promotion Strategies for TVET ODA, Sejong: KRIVET.

[13] H. J. Ahn et al. (2018). *Research on Educ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for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 Action strategies in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TVET)*. Jincheon :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14] J. Y. Cho & J. H. Kang. (2014). A Study on Promot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PPP) 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on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TVET) Focusing on Three Central Asian Countries.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Review*, 6(1), 111-151.

[15] N. C. Lee, J. S. Chung & H. J. Yoon.(2016). *A Study on ODA Supporting Policies of Efficien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upport Policies for Asia Developing Countries*. Sejong: KRIVET.

[16] N. C. Lee (2015. July). ODA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The HRD Review*, 1, 80-95.

[17] Y. M. Lee, Y. S. Choi, & I. S. Lee. (2017. July).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hat Direction and Tasks are Needed?.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7), pp. 163-170.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7.70>

[18] J. E. Chae & M. S. Woo. (2012). *The Educ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Plan*. Sejong: KIEP.

[19] KOICA Statistics reference. <http://stat.koica.go.kr/ipm/os/acms/smriizeAreaList.do?lang=ko>

[20] J. E. Chae & M. S. Woo. (2013). *The Educ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Plan in Vietnam:Focusing o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ejong: KIEP.

[21] C. H. Kim et all. (2013). *A Study On Effective Follow-Up Policies for TVET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Sejong: KRIVET.

[22] Y. H. Lee, H. J. Kim, K. C. Lee, H. J. Kwon & H. N. Yoo. (2013). *Audit Report on TVET Projects: Focusing on the cases in Vietnam*. Sejong: KOICA.

이 태 정(Tae-Jung Lee)

[장학원]



- 1990년 2월 : 계명대학교 회계학과(경영학사)
- 1999년 2월 : 경북대학교 회계학과(경영학석사)
- 2006년 2월 : 경북대학교 회계학과(경영학박사)
- 1991년 10월 ~ 1993년 11월 : 안진 회계법인
- 1993년 11월 ~ 2001년 8월 : 이태정 회계사 사무소
- 2001년 9월 ~ 현재 : 계명문화대학교 세무회계정보과 교수
- 관심분야 : 세무회계, 재정 분석
- E-Mail : siara@kmcu.ac.kr

윤 우 영(Woo-Young Yun)

[장학원]



- 1992년 2월 : 경북대학교 회계학과(경영학사)
- 1994년 2월 : 경북대학교 회계학과(경영학석사)
- 1997년 8월 : 경북대학교 회계학과(경영학박사)
- 1997년 3월 ~ 2011년 2월 : 호산대학교 세무회계과
- 2011년 3월 ~ 현재 : 계명문화대학교 세무회계정보과 교수
- 관심분야 : 원가관리회계, 성과관리
- E-Mail : ywy38@kmcu.ac.kr